

Bon Voyage

여행자의 이미지를 통해 드러난 동심 童心

_ 작가 최순임

여행은 단순한 장소의 이동이 아닌 그 이상의 형이상학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인간은 여행을 통해 존재에 대한 발견과 응시를 거쳐 깨달음과 새로운 경험을 확장해 나간다. 여행 Voyage은 곧 나는 누구이고, 삶이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을 가지고 떠나는 행위이다. 이와 같이 의문에 대한 대답을 찾는 여정이라는 면에서 삶과 여행은 동일한 의미를 공유한다. 삶이 행복과 희망 속에서도 늘 예측 불가능하고 가변성을 지니는 것처럼 여행에는 설렘과 기대 속에서도 예상할 수 없는 돌발상황들이 이면에 공존하기 때문이다.

나의 작업은 일상의 단함과 새로운 세계로의 열림이라는 여행을 통해 자아와의 만남과 성찰의 경험을 동화적 상상에 기반을 두고 형상화한다.

여행을 통해 도달하고자하는 특별한 시공은
자연과 동심이다.

중국 명대의 철학자 이지의 「동심설」과 동양 산수화의 「와유」 개념을 통해 결국 자연과 동심이 '일상의 초월'과 '정신적 자유'의 의미로 연결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내가 작업에 임할 때, 또 관객이 그것을 바라볼 때도, 한 인간이 가진 본연의 결을 느끼며 순수한 동심의 숲을 거닐고 아이처럼 노니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



traveler | 50 X 40 X 120cm ceramics, wood 2017

최순임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조소전공 졸업, 전남대학교 대학원 조소전공 졸업
논문 「여행 이미지를 통해 나타난 동심 표현연구」

전남대학교예술대학 외래교수 / 전국여류조각가회원
한국미협회원 / 전남건축조형물 심의위원

e-mail duamart@hanmail.net



CHOI SOON IM

개인전

- 2023 Bon voyage, 삶의 여행을 응원하는 인사, 오룡아트홀, 광주, 한국
- 2022 니체의 고양이, 무안군오송우미술관, 무안, 한국
Bon voyage, 김넷과 갤러리, 광주, 한국
- 2021 환상여행도, 롯데갤러리, 광주, 한국
Bon voyage, 10년후 그라운드, 광주, 한국
- 2020 Bon voyage, 삶의 여행을 응원하는 인사, 갤러리 숲, 대전, 한국
- 2019 Bon voyage, 머무는 여행 요양객, 아트폴리곤, 광주, 한국
- 2018 Bon voyage, 이화갤러리, 광주, 한국
Living the dream, 이음 갤러리, 무안, 한국
- 2017 Croon the Melody, BankART NYK, 요코하마, 일본
꿈을 꾸다, 양림미술관, 광주, 한국
꿈을 꾸다, 회수갤러리, 서울, 한국
- 2016 모리 앤 캣 - 여행자, 예담갤러리, 대전, 한국
국제 아트페어 아트광주16,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 한국
여행자, BONO 갤러리, 광주, 한국
- 2015 지구별 여행자, 1st 갤러리, 광주, 한국
달콤 양양이, 문화공간 달콤양산, 광주, 한국
고양이에게 길을 묻다, DS 갤러리, 광주, 한국
- 2014 마음까지 그루밍, 양림미술관, 광주, 한국
광주예총 기획 초대전, 아시아 창작스튜디오, 광주, 한국
- 2013 의기양양 고양이, CNUH 갤러리, 광주, 한국
- 2012 묘연, 일곡 갤러리, 광주, 한국

기획·단체전·100여 회

- 2021 김해 비엔날레 국제미술제, 김해, 한국
예술가로 사는 것, 포스코 미술관, 서울, 한국
일상,꿈,염원 민화로 말한다. 전남도립분관, 옥과, 한국
- 2020 예술이 친구라면, 갤러리 세인, 서울, 한국
아산 미술관 기획 초대전 일상애틀건 꿈, 아산 미술관, 옥과, 한국
광주시립 기획 초대전 놀이가 미술이 될 때, 광주시립미술관, 광주, 한국
- 2019 중국 국제 세라믹 엑스포, 중국도자 국제전시관, 리링, 중국
- 2018 BRIDGE 광주시립미술관 국제레지던시 작가전 G&J갤러리, 서울, 한국
공감시대 인터랙티브 아트, 담빛예술창고, 담양, 한국
중국 국제 세라믹 엑스포, 중국도자 국제전시관, 리링, 중국
- 2017 2+2+=2.2×2=2 핫가이드 문화재단 초대전, Retara gallery, 삿포르, 일본
- 2016 서울 어포더블 국제 아트페어, DDP, 서울, 한국
제11회 광주 비엔날레 특별전,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 광주, 한국

수상·경력

- 2019 광주 호랑가시나무 창작소 레지던시 입주작가
- 2017 광주시립 미술관 국제 레지던시 요코하마 파견작가
- 2015 광주광역시 미술대전 최우수상, 광주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
- 2014 광주광역시 문화 예술상 오지호상 특별상

소장처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서울
광주시립미술관, 광주

THE SOLO EXHIBITION BY CHOI SOON IM

Bon Voyage

2023. Thu.

02.

02.

Thu.

03.

30.

최순임 초대전

오룡관 1층

지스트 오룡아트홀



광주과학기술원
Gwangju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23
TEL 062-715-2628



여행자의 시대

지난 10년 동안 최순임 작가의 작업을 관통해 온 핵심적인 주제는 ‘여행자’라고 생각한다. 단초는 고양이였다. 2012년에 그는 첫 번째 개인전을 열었는데, 그때 선보인 작품들이 흙으로 빚은 고양이 조각상이었다. 우연히 길에서 발견한 유기 고양이와 함께 생활하면서 작가는 고양이에게 다양한 감정을 투영하여 작업으로 표현했던 것이다. 2014년 개인전에서는 고양이와 더불어 소녀 이미지가 회화와 조각 작업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고양이를 안은 소녀는 작가의 자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중 고양이와 함께 여행 가방을 끌고 있는 소녀가 여행자로 지칭되었다. 왜 작가는 고양이를 안은 소녀를 여행자라고 명명했을까? 작가는 ‘광주’라는 한 도시 안에서 태어나 계속 살아가는 삶에 대해 권태를 느껴 늘 새로운 자극과 변화를 갈망해 왔기 때문이다. 그런 작가의 욕망과 꿈을 대변해주는 인물이 바로 여행자인 셈이다.



여행자 | 40X30X70cm, ceramics, 2015

초현실적인 선인장 숲

선인장 이미지는 볼리비아의 우유니 소금사막에 서식하는 에키놉시스Echinopsis 선인장에서 비롯되었다. 작가는 1,200살이 넘는 초대형 선인장들을 보고 그 강인한 생명력에 감탄했다. 소녀와 고양이, 이국적인 선인장의 조합은 ‘낮선 지구별의 선인장 숲을 방문한 여행자’라는 이야기로 발전하였다. 중요한 특성은 선인장들의 초현실적인 이미지다. 마치 신화의 한 장면처럼 선인장에서 별과 배가 태어나고 그곳에 요정이 함께 노닌다. 이렇게 이질적인 사물들의 낮선 만남을 통해 시적이고 환상적인 분위기가 풍부하게 형성된다. 어떤 사물들을 맥락이 전혀 다른 곳에 두어서 기이한 느낌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표현 기법을 ‘데페이즈망dépaysement’이라고 하는데 이는 초현실주의자들이 즐겨 사용했던 방식이다. 이런 표현 기법은 작가의 동화적 상상력에서 자연스럽게 발현된 결과로 보인다. 이 환상적인 「선인장 숲」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감성적으로 환기시킨다.



다가섬, 마주침, 충돌 | 120X80cmX3, acrylic on canvas, 2022

충돌(衝突, collision)은 물리학에서 두 물체가 서로의 운동에 간섭하는 현상 [충돌] 움직이는 두 물체가 접촉하여 짧은 시간 내에 서로 힘을 미침. 또는 그런 현상.

또다시 새로운 여행으로

작가의 작품엔 푸근한 기운이 감돈다. 삶에 대한 고뇌와 불안까지도 그의 작품 안에선 결국 낙관적인 느낌으로 수렴된다. 이는 작가의 내면에 깃든 어린아이 같은 심성이 작품에 진하게 배어 있기 때문이라. 그 어린아이 같은 심성, 즉 ‘동심’이란 단순히 순진무구한 마음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작가의 말에 따르면 그것은 ‘살아가면서 외부의 다양한 압력에도 불구하고 본연의 성정을 지키며 자유로울 수 있는 힘’이다. 그 힘으로 그의 예술적 상상력이 피어났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그의 예술적 상상력이 펼쳐 놓은 세상에서 주인공은 여행자다. 작가의 분신으로서 여행자는 사랑과 자유와 환상을 추구하며 낮선 세계를 찾아 나선다. 이는 작가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을 넘어 궁극적으로 인간의 내면과 외부 세계를 끊임없이 넘나들며 통찰하려는 행위이기도 하다. 그 과정에서 정제된 모습의 다양한 여행자들이 탄생했다. 작가는 그들을 깊이 응시하며 또다시 새로운 세계로 가는 여행을 꿈꾼다.



내가 지켜줄게 | 300X180X100cm, Resin, LED, Sensor, 2017